

공공기관 완주 이전 본격화

완주소방서·완주교육지원청 올해 이전 첫 삽

완주소방서와 완주교육지원청을 필두로 그간 지역 밖에 있던 각종 완주 관할의 공공기관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이전에 나선다.

빠르면 2019년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완주군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4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최된 행정자치부의 2016년 제4차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완주소방서 신축(96억원)'이 조건부 승인을 받음으로써, 2019년 봄 개소를 목표로 올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완주 소방서는 삼봉공공주택지구(웰빙시티)내에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봉동과 산업단지, 삼례, 이서

혁신도시 지역 등 완주군 핵심 도시 지역 어디나 5분 이내 끝타임 확보가 가능해지는 등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완주교육지원청 이전도 지난해 12월 16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용진면 완주군청 주변으로 이전될 예정인 완주교육지원청은 약 130억원이 투입되는데, 빠르면 올해 7월 설계에 착수해 2019년 9월경에 이전이 완료된다.

교육지원청 이전에 따라 완주지역 초·중·고 52개교, 1만2000여명의 학생들의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이 가

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완주군병원 설치, 완주세무서 신설 등 정치권이나 경제계에서도 여러 공공기관의 완주 이전 및 신설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공기관의 완주 이전은 다양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신속히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완주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그간 완주에 없던 기관이 옮겨거나 새롭게 설치되면 주민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지역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된다"며 "공공기관 이전 외에 현안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불어 '대한민국 행복도시 1번지'로 받돋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우리 손으로'

군, 민선6기 공약 점검 주민배심원제 운영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동 진행 성과 기대

무주군이 민선 6기 공약 이행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진행하는 주민배심원제는 공약이행의 성과와 한계를 주민들과 함께 고민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에 따르면 공약이행현황 점검과 이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수립, 이행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지난해 말 19세 이상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차 ARS, 2차 전화면접을 통해 배심원 40명을 선발했다.

배심원들은 오는 3월 20일까지 관련 교육과 분인활동, 현장답사, 담당공무원 면담과 토론, 권고안 등을 도출하는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4일 무주읍 최북미술관 다목적영상실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연령과 성 등을 고려한 5개분임을 구성했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류일환 정책자문위원으로부터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해를 비롯한 △주민참여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주민배심원제의 의미·목적·운영·개요 및 역할 등을 교육받았다.



민선 6기 공약 이행 점검을 위한 무주군 주민배심원단 회의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무주군 민선 6기 공약이행 주민배심원들은 "주민들의 관심이 지역을 살리고 주민들을 잘 살게 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민선 6기 무주군이 내세운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견을 내서 공약이 진정 지역과 주민을 위해 추진되는 말 그대로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역할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에는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토의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1월 12일부터 22일까지는 분인별 심의 안건에 대한 현장을 답사하고 1월 23일에는 공약실천 변경계획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배심원단의 권고안은 내용이 모두

취합되는 3월 31일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에 대한 가부는 단체장이 공식적인 방식으로 공포할 예정이다.

무주군 민선 6기 공약이행 주민배심원단에서 심의하게 되는 공약은 총 32건으로 조정심의 안건은 농산물유통센터(공약명, 예산, 목표 변경)를 비롯해 10건이며 점검(평가)안건은 나머지 22건 중 덕유산권 톱배치센터조성사업 등 10건이다.

조정안건은 공약 내용 중 폐기 또는 변경, 신설의 필요성이 있는 안건이며 점검(평가) 안건은 현재 진행 중인 공약 중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점검이 필요한 안건을 말하는 것으로, 군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만큼 주민배심원단의 활동과 결과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우수

기관 표창·인센티브 받아

장수군은 전라북도 주관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가 최근 우수군으로 선정, 도지사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3,000만원을 받는다.

이는 행정자치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6년 전국 규제지도 평가 조사'에서 경제활동진화성 부문 S등급을 받아 도내2위·전국 9위로 평가된 결과이다.

경제활동진화성 평가는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상황, 기업 관련 지자체법규, 기업지원 제도 등을 비교 분석해 순위와 등급(S~D)을 발표한 자료로 장수군은 작년 47위 A등급에서 올해는 9위 S등급으로 상승했다.

그동안 군은 군민에 불편을 주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지자체법규를 정비해왔으며, 특히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빠르게 관련규제를 개선했다.

개발활성화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경사도를 완화했으며, 음식점 테라스 영업 일부 허용, 도로복구 부

담금 납부기한 개선, 대규모점포 등록시 추가서류 삭제 등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폐지했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장수군이 도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것은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자체법규 규제개선을 위해 관련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며 "올해도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홍삼연구-제너럴네이처-이엔코리아 향토 명품화사업 기술개발 협약 체결

(재)진안홍삼연구소(소장 고근택)는 4일 주)제너럴네이처, 주)이엔코리아와 진안홍삼 향토 명품화사업을 위한 연구개발과 산업화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진안홍삼연구소와 주)제너럴네이처는 '홍삼천마 및 허수 혼합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발기부전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성물(10-1113593)' 특허의 권리양도와 공동연구 과제 발굴을 통한 제품개발과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발제품의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와 산업화에 대한

상호협력력을 약속하였다.

주)제너럴네이처 (백진수 대표)는 2014년 7월 법인을 설립하고, 홍콩법인 J&K WELLNESS 수출 계약, 기업부설연구소 국제발효미생물연구소 설립, 아프리카 케냐 현지 유기농 농업법인 'GN ECHOSEE' 합작투자 설립, 농업축산식품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회사이다.

또한, 진안홍삼연구소와 주)이엔코리아와는 진안홍삼 향토 명품화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 산업화

를 위한 기술협약으로서, 공동연구 과제 발굴 및 제품개발 등을 체결하였다.

주)이엔코리아(대표 최정환)는 탄소응용소재를 이용한 탄소응용필름 및 포장지 화장품을 제조 생산하는 전북 도내 선도기업으로, 중국 상해소재의 장수연화정공유한공사와 함께 40조원 규모의 중국 화장품 시장에 본격 진출하였다.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으로는 이엔코리아가 화장품 최초로 탄소를 접목한 제4세대 마스크시트인 '토르마린 바이오 셀룰로오스 탄소 마스크팩'과 '너 메지컬 마스크 팩(膜奇)' 제품이며, 국내에서 '탄소 마스크팩'이 신개념 마스크팩으로 알려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덕유산국립공원,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세뽕투구꽃 군락지 특별보호구역 지정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홍대이)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세뽕투구꽃 군락지를 2035년까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공원자원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법적보호종(멸종위기야생동물 등) 및 중요 동·식물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제80조,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일정 기간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덕유산국립공원에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광릉요강꽃 군락지

를 비롯한 8개 지역, 1.13㎢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세뽕투구꽃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한반도 고유 식물로 오각형의 잎과 투구를 닮은 꽃 모양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이들의 분포 지역이 많지 않고 불법 채취의 우려가 높아 환경부가 1993년부터 법적보호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홍성열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특별보호구역 지정은 멸종위기생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적극 추진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순찰을 통해 서식지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군민과의 약속 89% 이행

완료 14건·정상추진 9건

민선6기 이행률 진안군수의 공약이 군민과의 약속 이행 9부 능선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안군 민선6기 공약은 7대 분야, 23개 사업, 총사업비 2,639억원 규모이며 지난 12월말 기준 자체평가 결과 완료 14건, 정상추진 9건으로 공약이행률은 89.6%로 집계됐다.

이항로 군수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청정환경 지키기는 지난해 클린하우스를 63개소 증설한 결과 재활용품 수거량이 전년 대비 81%나 증가했고 폐비닐 781톤, 농약용기 9톤, 농업용 폐지재 50톤 등 영농폐기물 수거량도 다량 증가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벼농사 면적의 75%인 1,500ha가 우렁이농법으로 경작돼 용담호 수질 보전에 큰 성과를 거두 쓰레기

3NO운동과 함께 청정환경 지키기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아 2년 연속 대한민국 창조경제 대상과 지방자치경영대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밖에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하는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 등급을 획득하였고 전국 지자체 공약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올 한해 진안군은 민선6기 4년차를 맞아 마을하수도사업에 그동안 확보한 789억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80%까지 끌어올리고 전주권에 로컬직매장을 조성하고 부귀산 별빛고원을 국비로 본격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진안 보전 △살맛 나는 부자농촌 육성 △사람과 돈이 모이는 대표관광지 조성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안성면 공정지구 신규마을.

무주군, 안성 공정지구 택지 분양

무주군은 덕유산국립공원 인근에 조성 중인 안성면 공정지구 신규마을에 대한 택지 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54필지 중 우선 예비 입주 신청자 50명을 대상으로 분양 추첨을 진행(1월 19일)할 계획으로 추첨자 우선순위에 따라 분양 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분양가격은 3.3㎡당 38만 원 ~ 45만 원으로 분양대금은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우선 납부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무주군 마을만들기사업소 전원마을 확립팀 담당은 "안성면 공정지구 신규마을은 덕유산 I에서 2.5km, 안성면 소재지로부터 2.5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등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도 좋아 도시민들의 관심이 큰 곳"이라며 "분양 필지는 추

가 분양을 통해 분양할 계획으로 지 금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3월 말까지는 분양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8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무주군 안성면 공정지구 신규마을은 총 8만 9천 673㎡ 규모에 조성 중인 곳으로, 현재 기반시설 공사가 95% 정도 진행된 상태며 도로와 소공원 등 공동 이용시설까지 모두 갖춰져 분양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무주군은 안성면 공정지구 신규마을이 인구 고령화와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에 든든한 귀농·귀촌인 유입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안성공정지구 신규마을 분양공고 해 있는 등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도 좋아 도시민들의 관심이 큰 곳"이라며 "분양 필지는 추

/무주=전문선 기자

국립공원

유기홍 장수군의회 의장 AI 특별방역초소 2곳 방문

유기홍 장수군의회 의장은 최근 구제역과 AI 특별방역초소, 두 곳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장수군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산서면 신창리와 장계면 금곡리에 거점소독장소를 설치, 가족운반차량이나 가족분뇨 등 관련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유기홍 의장은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역활동에 여념이 없는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하면서, '우리 장수군이 구제역과 AI로부터 청정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진안군은 1월 4일부터 16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및 11개 읍·면에서 2017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새해 영농계획 수립, 친환경재배 및 신소득 작목 재배기술에 대한 실용교육으로 농업인이 실천해야 할 핵심기술 보급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진안읍, 주천면을 시작으로 12일 동안 13개 과정 15회,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올해는 특히 일반농사 교육에서 우렁이농법 사례발표를 통한 우렁이농법의 올바른 재배법 및 진안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친환경 농법을 홍보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육일정은 △사과과정교육(11일), GAP(12일), 농업미생물(13일), 영지버섯(16일)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며 △일반농사-우렁이농법, 사과, 수박, 멜론, 꽃감, 잣, 고구마(11일)교육은 11개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선정

완주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한 '2017년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은 지역의 도시·경관 디자인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및 조정 역할을 통해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민의 특색을 살린 경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3200만원(국비 100%), 2018년도에는 3200만원(국비 50%, 군비 50%)씩, 2년간 지원된다.

완주군은 경관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경관디자인팀을 신설하고,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한 결과, 선정으로 이어졌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완주군은 민간전문가(지역계획총괄) 지원을 통해 공공건축·경관 및 공공디자인 분야에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경관 향상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파출소, 농산물 보관장소 점검

장수경찰서(서장 전준호) 장수파출소는 농축산물 절도예방을 위해 보관장소에 대해 집중 점검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점검활동은 수확 후 보관중인 농축산물과 농기계 보관 장소 및 비닐하우스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범진단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낫산 사람이나 수상한 차량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 등 도난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마을방범CCTV와 적외선 경보기 등 방범시설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방범이 취약한 심야시간대 자율방범대 합동 순찰과 도보순찰을 강화해 절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수파출소소장(경감 김홍근)은 "농축산물 도난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